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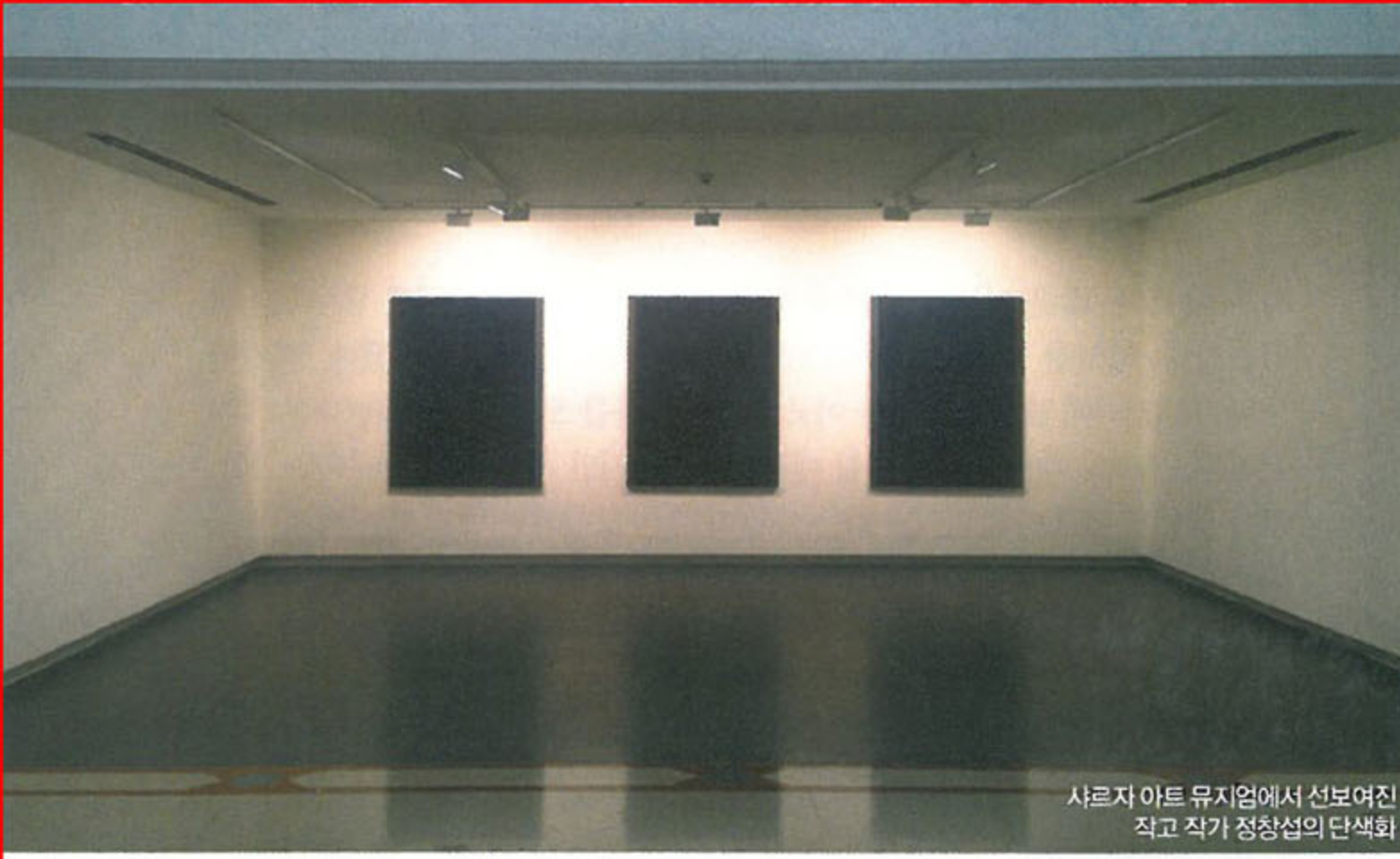
# BAZZAAR

Harp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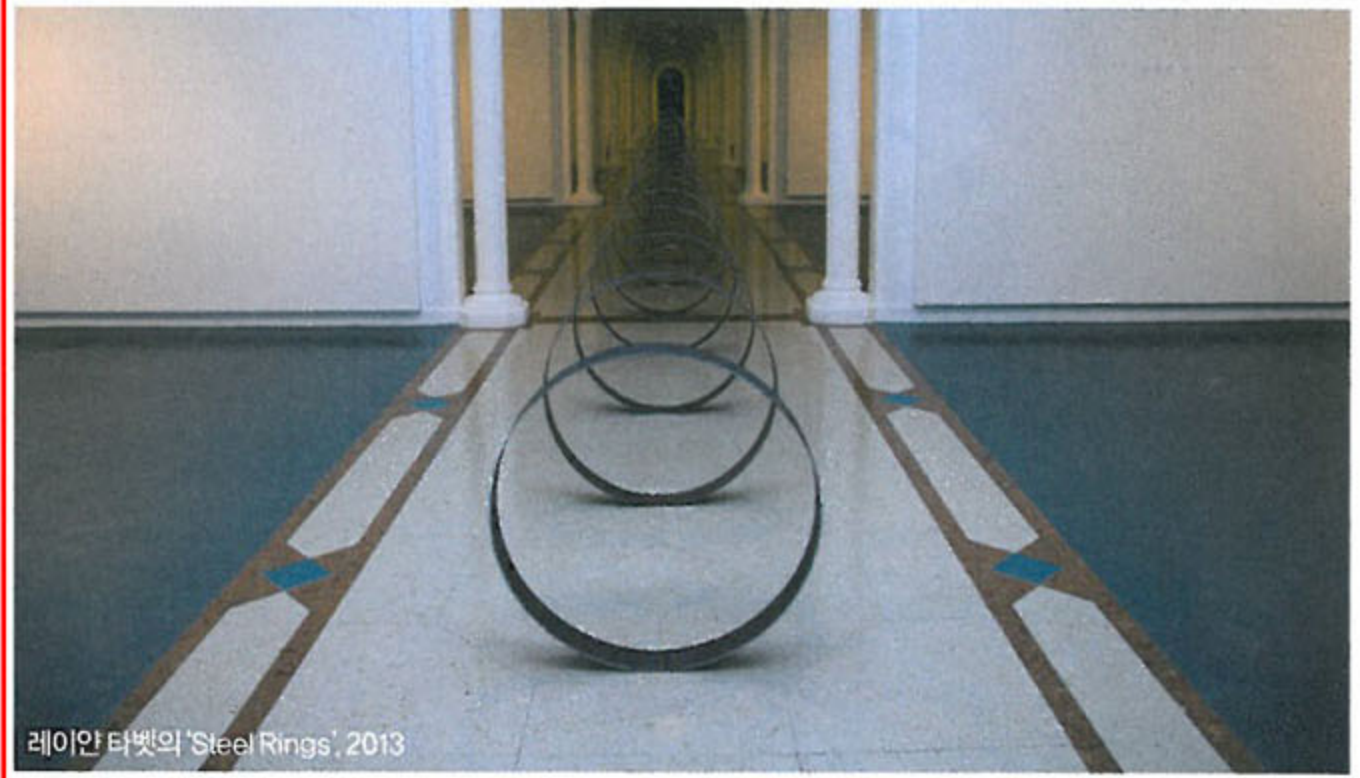
# ART

APRIL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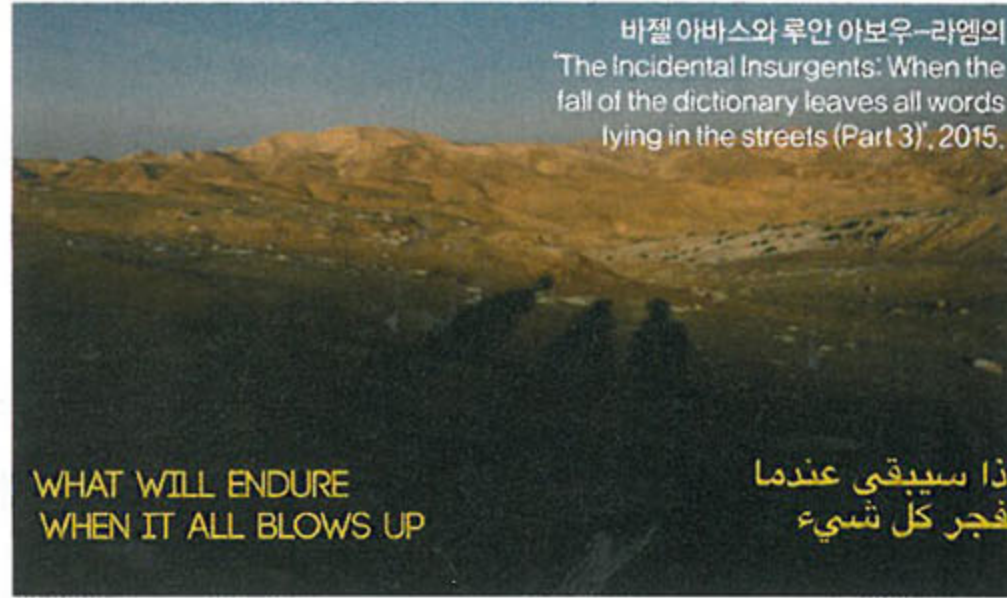
샤르자 아트 뮤지엄에서 선보여진 작고 작가 정착섭의 단색화



레이안 타벳의 'Steel Rings', 2013



에두아르두 나바로의 공공 예술 'XYZ' 2015



비젤 아바스와 루인 아보우-라엘의 'The Incidental Insurgents: When the fall of the dictionary leaves all words lying in the streets (Part 3)', 2015.

WHAT WILL ENDURE WHEN IT ALL BLOWS UP

إذا سبقني عندما تفجر كل شيء



2012년 양현미술상 수상자인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의 'Reconstrucion2: Here We Stand', 2015

머물며 '장소특정적'인 작품을 고민했다. 샤르자 비엔날레는 예술 관련자들은 물론 연구기관과 학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적극 주선하며 도시의 크고 작은 '현재'를 피상적이지 않게 담아내도록 후원했는데, 참여 작가들은 이 과정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다. 양혜규도 마찬가지였다. "도시계획학자, 고고학자 등에게 이곳의 전통 건축에 대해 배운 적도 있어요. 다른 작가들과 토론하고, 워크숍 하고, 영화 보고, 퍼포먼스 보고, 프레젠테이션 듣고, 답사가 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샤르자의 상황이란 아랍권만이 가진 이국성이라는 말로도 해석된다. 샤르자의 풍경은 어쩔 수 없이 낯설다. 코란 경전이 울려 퍼지면 어딘가에서 쏟아져 나온 남자들이 서둘러 사원으로 들어갔고, 칸두라를 걸친 아랍 저널리스트들은 프레스 투어 도중에 한쪽에서 박스를 깔고 기도를 했다. 일견 신기하면서도 오랫동안 축적된 중동 문화에 대한 물이해와 최근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사나운 사건 위주의 정보 덕분인지 더욱 거리감이 느껴진다. (샤르자라는 곳에 간다는 말에 지인들 중 십중팔구는 이렇게 물었다. "거기는 괜찮아?") 중동의 참모습은 진실과 편견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유일하게 분명한 건 이 혼란스러운 양상이 작가들에게는 영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멕시코 작가 다미안 오르테가 선보인 'Talking Wal'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만든 비밀 통로에서 영감 받은 작품이다. 전통 건축에서 활용한 환기 시스템을 접목했고, 그 결과 정치적, 문화적 장벽은 자연스럽게 '환기'

가 된다. 정원 철학에 큰 영향을 받은 일본 아티스트 시노다 타로는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연구를 기반으로 사막 정원 'Karesansui'를 만들었다. 브라질에서 온 신시아 마르셀은 중동의 개발 붐을 투영한 작품 'At the Risk of the Real'을 완성하기 위해 샤르자 전역의 모래를 모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남자들이 위에서 모래를 흠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바이런 김은 샤르자의 하늘을 페인팅한 '스카이 블루 플래그'를 해변도로에 걸어두었고, 이는 재현과 추상의 개념을 통해 국기처럼 거대한 것이 바람에 흔들리고 사라지는 걸 상상하게 만들었다. 샤르자 아트 뮤지엄의 한 층은 통째로 레이안 타벳 작가의 'Steel Rings'에 내주었는데, 실제 송유관의 일부를 떼어 온 것이라 했다. 한편 리그리트 티라바니아는 아예 전시장의 중정에 부엌을 만들고는 현지 셰프를 고용, 현지의 장미와 허브로 만든 시원한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프로젝트 혹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고고학자들과 협업한 마이클 주는 통통배로 5분 거리에 있는 포트 카리드 근처의 버려진 창고에서 과거 인류와 고고학적 패턴을 추적하기 위해 걸음이라는 일상적인 행위를 접목하도록 만든다.

특히 한국 작가들에게 중동은 조금 특별할지도 모르겠다. 양혜규의 말처럼 중동과 한국은 과거 꽤 가까운 산업적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감성적인 관계로는 소통되지 않았고, 그건 지금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한두 명의 친구들은 '중동에 간 아버지'를 두었고, 이들은 때가 되면 미제 과자와 학용품을 학교에 갖고 왔던 것 같다. 아티스트 그룹 '믹스'



파렐니사지이드의 'Break the Atom and Vegetal Life', 1962



신시아 마르셀의 'At the Risk of the Real', 2015



아드리안 빌라 로하스의 'Planetarium', 2015

라이스'의 양철모 작가의 아버지처럼 말이다. '믹스라이스'는 체험으로 각인된 이방인의 감성을 바탕으로 머무는 장소와 기억,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샤르자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방인이 된 동남아 출신의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며 새로운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대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임흥순 작가는 베트남전, 이란·이라크전 등 아시아를 관통한 두 개의 큰 전쟁을 거치며 회생을 겪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환생'으로 지역과 성별을 뛰어넘는 인간 보편의 이야기를 끌어냈다.

혈기왕성한 작가들의 무대였던 이번 샤르자 비엔날레는 이례적으로 작고한 작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몇 년 전 작고한 정창섭이라는 작가와 단색화를 이

곳에서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몇몇 한국 작가들이 내게 말한 적 있다. 나이가 들면서 돌이켜 보니 정창섭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다고. 나를 미니멀리즘적으로 감동시킨 그 사람이 심지어 김범 작가의 스승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연 같은 필연에 깜짝 놀랐다."

샤르자 아트 뮤지엄의 1층에는 정창섭의 단색화가, 2층에는 김범의 드로잉 작품이 걸려 있으니 '그들 영혼이 겹쳐진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단색화에 대한 역사적, 미학적 재조명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실 단색화는 단순한 미술 장르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에 태어난 특정한 미술 형식이자 예술적 실천에 대한 태도에 가깝다. 그런 면에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아랍의 한가운데에서 만난 정창섭의 작품은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까지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른 아침에 버스에 몸을 실었고 버스는 사진에서나 보던 험준한 돌산과 사막 위에 지어진 오아시스 같은 건물들을 지나 두 시간 남짓 달렸다. 작은 도시에 도

“우리는 아랍의 다른 도시와는 달리 이 땅에서 자생하는 예술을 추구한다.”

-후르알 카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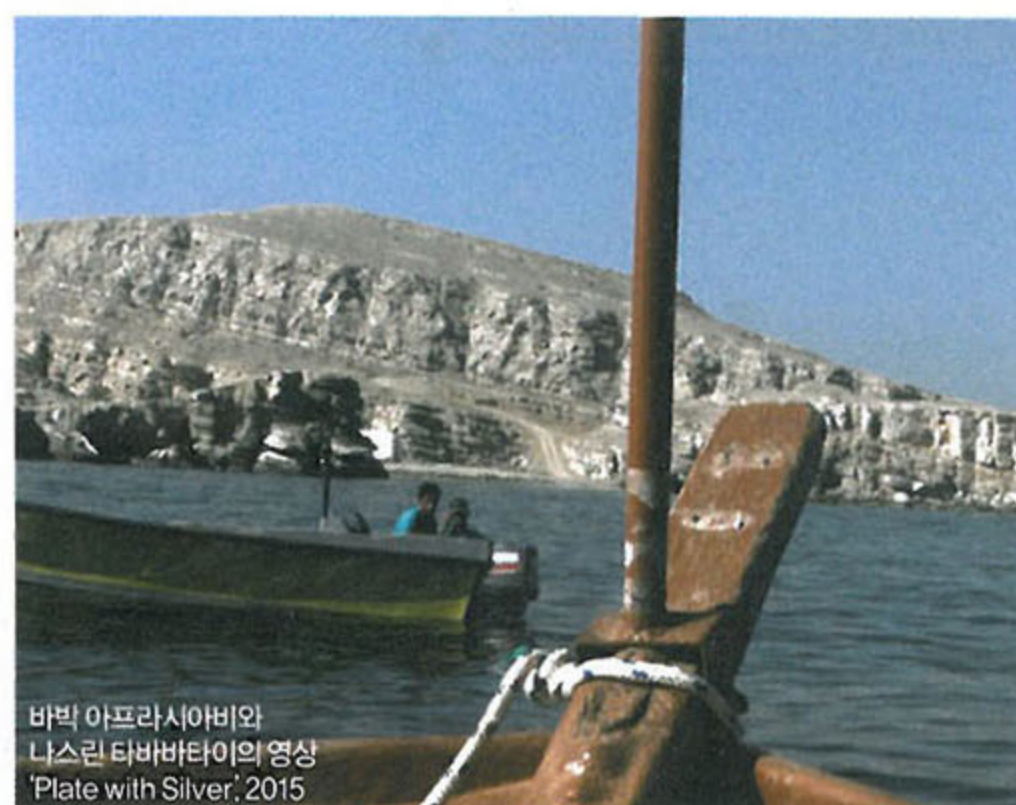
착했고, 다시 해변을 따라 40여 분을 더 갔다. 칼바라는 지역, 동쪽 해안의 버려진 얼음공장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바로 아드리안 빌라 로하스라는 젊은 작가의 작품 '플래타리움'이었다. 그는 버려진 낡은 공장에 'Lack of Human Presence'라는 주제를 표현했다. 깨진 시멘트 속에 박힌 새의 깃털, 낡은 운동화, 부패한 과일, 뼈, 조개껍데기 등이 인간과 인간성이 부재한 역사는 곧 과거 거임을 생태학적으로 피력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온 이 청년은 결국 부활을 믿는 낙관적인 예술가였다. 한국의 DMZ에 머물면서 작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져온 씨앗을 아랍에미리트에서 채집한 요소들 속에 숨겨두었다고. 그렇게 예술은 대륙을 넘어 이동하며 진화한다.

아일랜드 비엔날레의 CEO이자 디렉터인 우드로 커노핸드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주어진 이 평범하지 않은 장소를 넘어 수많은 우리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어냈다. 아티스트들은 다채로운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고 미지의 미래를 반영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장소들까지 변형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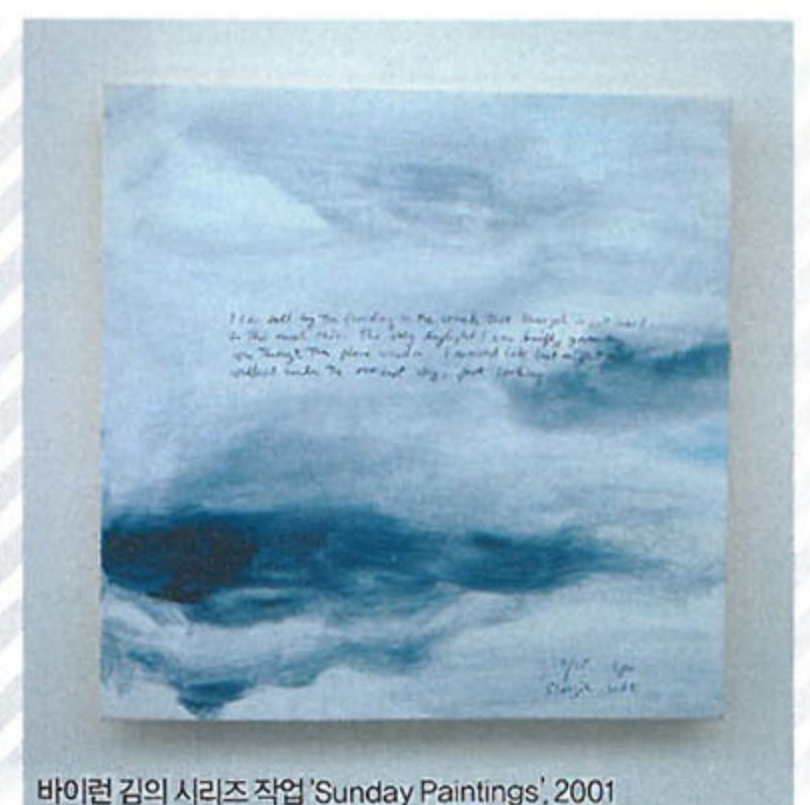
미국 내에서도 소수자인 '블랙 아메리칸'의 일상과 예술에 관심을 가져온 주은지는 이번에도 예술로서 미래를 '가능성'으로 바꾸어놓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우리가 이곳에 대해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 가지 않아. 왜냐하면 그곳은 여성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폭력적이니까.' 난 그런 걸 믿지 않는다. 우리를 위한 최고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러므로 전 세계인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중동뿐만 아니라 세상의 선입견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진지한 도전이다." 그녀의 마지막 인사말, "부디 즐기다 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떠나는 날이 되어서야 알게 됐다. **B** 에디터/ 윤혜정



시노다 타쿠의 'Karesansui', 2015



바빅 아프라시아비와 나스린 타바바타이의 영상 'Plate with Silver', 2015



바이런 김의 시리즈 작업 'Sunday Paintings', 2001